

# 현대차, 탄소 CNG 용기 버스 생산

### 내년 7월부터 도내 일진복합소재 제작 용기 부착 초저상 버스 양산 계획 도 '탄소섬유 CNG용기 장착 시내버스 시범 보급사업' 이 큰 영향 끼쳐

도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 CNG 용기가 내년 하반기 양산예정인 현대차 버스에 장착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도내 일진복합소재에서 만든 탄소섬유 CNG 용기를 부착한 초저상 버스를 양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일대우와 TGM 등에서 탄소섬유 용기를 장착한 버스를 일부 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내 최대 상용차 생산업체인 현대차가

양산 버스에 탄소섬유 CNG 용기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현대차의 탄소섬유 CNG용기 버스 생산 결정에는 전북도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섬유 CNG용기 장착 시내버스 시범 보급사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는 탄소섬유 CNG 용기 부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탄소섬유 수요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9년까지 70대를 시범 보급한다

는 계획 아래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15대의 탄소섬유 CNG용기 버스를 보급한바 있다.

탄소섬유 CNG 용기는 플라스틱 용기에 고압을 견딜 수 있도록 탄소섬유를 감아 가볍게 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금속용기 제품보다 훨씬 가벼워 연비개선, 주행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과 비금속성 용기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용기중량이 360kg 감소될 경우

연간 1대당 190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64만원의 환경개선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현대차의 경우에는 약 500kg의 중량 감소가 이뤄져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식 탄소산업과장은 "현대차 생산 초저상 버스에 도내에서 생산된 탄소섬유와 용기가 부착될 예정으로 탄소소재부터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밸류 체인이 완성된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응용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익산에서도 시국선언 익산지역 20개 시민단체가 3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 도,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확대

전북도가 상·하수도 및 가스 등 각종 지하시설물 정보의 전산화를 확대한다.

지난 1994년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발생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과 같은 지하 공간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에 7억원을 들여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추가로 전산화한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는 지하의 재난·재해대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반·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하개발 인·허가, 설계·시공,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한편 도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36억원을 투입해 전주 등 도내 7개 시·군 지하시설물 1만1,416km의 정보를 전산화했다. /고민형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군산조선소 준치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 전북상협, 긴급 호소문 발표 ·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위기로 지역경제가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3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며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 중단 가능성 소식에 군산조선소의 폐쇄는 전북경제의 한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산업 구조개혁에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군산에서 건조계 획이었던 LPG운반선 2척을 울산으로 재배치한 만큼, 최근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수주물량의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상협은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지자체와 상공인, 도민 모두의 유치 노력으로 우리 지역 군산에 등지를 틈 이대로 매출 1조 2000억원, 고용 5000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며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하는 등 전북경제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자리잡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공인들은

군산조선소 폐쇄는 전북경제를 이끄는 중심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5000여 근로자의 실직과 80여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향후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없어지는 등 나후 전북의 오명을 후대에 물려줄 수 없다"며 "전북도민들과 애환인들이 합심해서 군산조선소 지키 운동의 불씨가 되어 줄 것"을 호소했다.

전북상협은 이 서명발표를 기점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펼쳐 서명부를 현대중공업 본사에 전달하고, 각계각층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 서남해해상풍력 불안피해대책위 사무소 개소 허가어선 보상 접수 등 본격 활동

서남해해상풍력 불안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이 개소되어 허가어선 보상 접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남해해상풍력 불안피해대책위원회는 3일 변산면 지사리에 이승연 한국 해상풍력 사장, 한산수 불안피해대책위원장, 표제규 고창 피해대책위원장, 어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박종운 사무국장은 서남해 해상풍력은 불안과 고창 앞바다에 1,2,3차로 나누어 약 13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그간 반대하는 부안어민들과 부안군의 방관으로 사업인·허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 3월 산자부의 전원개발승인으로 본 궤도에 이르러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어 서남해해상풍력 불안피해대책위 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산수 불안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어민들을 접촉하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당위성과 어업피해에 대한 대



서남해해상풍력 불안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

책을 마련하려고 지속적으로 (주) 한국 해상풍력과 논의를 해왔으며 수산업 공존 실증단지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로 대화와 접촉을 통해 피해어민과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한국 해상풍력 사장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어민 소득 증대에 꼭 한몫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해해상풍력단지 불안피해대책위원회는 부안지역 어민들로 구성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 도내 쌀 대책 특별자금 150억, 농가에 직접 지급

전북도는 쌀 대책 특별자금 150억 원을 농가 소득 지지로 직접 보급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쌀 대책 특별자금은 선제적 쌀 값지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도가 농민단체 및 농협 등과 협의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집행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하지만 농협의 쌀 값 지지 역할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진척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농민단체와 회의를 통해

쌀 값 지지라는 수단 없이 직접적인 농가소득 보전책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쌀 대책 특별자금은 올해 1번에 한해 지급되며,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3ha 이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150억 원 조성에 대한 시군비(총 110억) 부담과 지급기준은 각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

## 전북도, 육아 페스티벌 행사 5일 개최

전북도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육아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

3일 도에 따르면 오는 5일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행복 더함 육아 Festival, 나는야 부모! 2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즐거운 가족 여가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어린이집 이용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홀로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이 쓰는 신조어인 '독박육아'가 아닌 육

아종합지원센터·지역사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공동 육아' 문화를 만들기위해 기획됐다.

임신부터 출산·육아·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열리고, 버블쇼와 발론 공연·흡연 예방 인형극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온가족이 함께하는 여가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조합장 이 안구

한국전력공사 장수지사  
지사장 안갑승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